

중저가 스마트 기기 '약진'... 합리성 찾는 소비자들

중저가폰 사용자 80% '만족' 가격 대비 고성능 날로 인기

KT경제연구소 시장 분석 '빈곤' 등 부정적 이미지도

소비자가 만족하는 중저가폰의 적정가격은 20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고객 형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구입기준으로 19만7000원을 중저가폰의 적정가격으로 판단했다. 현재 허용된 보조금 수준을 고려했을 때 출고가 기준으로 30~50만원 대 단말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중저가폰의 적정가에 대한 인식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중저가폰 사용자의 경우 중저가폰의 적정가격으로 10만~20만원을 꼽는 사람이 33.1%로 가장 많았으나 프리미엄폰 이용자의 경우에는 중저가폰 적정 가격으로 20만~30만원을 든 사람이 32.7%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보고서는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중저가폰 사용자의 81.7%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프리미엄폰 이용자의 만족도인 82.9%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중저가폰 사용자의 경우 만족 이유로 '가격'(18.2%)을 꼽는 사람이 가장 많아 중저가폰에선 역시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저가폰의 만족도는 최고 수준이 아닌 가격 대비 쓸만한 수준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중저가폰 이용자의 구매 의사에 관한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구매를 고려한다"는 반응이 과반이 넘는 51.6%로 나타났다.

구매적으로 현재 중저가폰 이용자의 구매 의사는 55.4%, 프리미엄폰 이용자는 50.1%가 중저가폰 구매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구매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저렴한 기기 구입 가격"과 "사용하기 충분한 성능"이 주목돼 역시 가격이 또 한



번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혔다.

한편 중저가폰 사용 시 연상되는 이미지는 '보수적인'(19.2%), '합리적인'(17.4%), '빈곤한'(9.6%), '고집스러운'(9.4%) 등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대로 '트렌디한'(0.2%), '사교적인'(0.2%), '혁신적인'(0.4%), '활동적인'(0.6%)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타인 시선을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 성

향을 고려했을 때 마케팅 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저가폰 구매 의사나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서 중저가폰이 스마트폰 시장 내 주류의 한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조금과 프리미엄폰이 주도하던 국내 시장에서 중저가폰의 성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제조사, 통신사, 유통채널 종사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태블릿시장 저가 제품 돌풍

세계시장 점유율 30%...1위 삼성·애플 제치고 약진

세계 태블릿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장악력이 눈에 띄게 줄고 저가형 제품이 약진하고 있다.

16일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3분기 태블릿 판매량이 5520만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면이 커지면서 프리미엄 제품이 늘어나는 스마트폰 시장과 달리 태블릿은 저가형 제품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가 없는 저가 제품을 뜻하는 '화이트 박스'(White Box)가 1650만대 판매돼 가장 높은 29.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판매량은 19%, 점유율은 3.2%포인트 각각 신장한 것이다.

이어 애플이 22.3% 점유율(1230만대)로 2위, 삼성전자가 17.6%(970만대)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판매량이 각각 13%와 8% 줄었으며 시장점유율도 4.8%포인트와 2.6%포인트 밀렸다.

이어 대만의 아수스와 중국의 레노버,

대만의 에이서가 각각 5.6%, 5.4%, 2.3%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지난해 pc시장 1위에 올랐고 올 초 스마트폰 제조사 모토로라 모바일리티를 인수한 레노버는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30%나 급증하면서 태블릿 시장에서도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조짐을 보였다.

운영체제(OS) 별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의 iOS 진영이 전체 시장의 72%와 22.3%를 차지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점유율이 안드로이드는 4.6%포인트 증가한 반면, iOS는 4.8%포인트 감소했다. 노트북의 장점을 살린 '서피스' 시리즈를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는 점유율이 5.7%로 지난해 동기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피터 킹 SA 태블릿 서비스 이사는 "기업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향후 태블릿 시장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미래의 태블릿 시장은 미디어 소비 용도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겨냥한 제품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인 IDC는 3분기 판매된 태블릿의 평균 가격이 294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 떨어졌다고 추산했다.

연합뉴스

韓직장인 94% 스마트폰 보유

우리나라 성인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이 주요 2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전 세계 25개국 성인 직장인 85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직장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4%나 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조사는 한국 직장인 304명을 비롯해 미국 503명, 캐나다 1001명, 인도 500명, 이탈리아 406명, 독일 403명, 영국 408명, 호주 400명, 일본 302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리나라에 이어 스마트폰 보유비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92%)였고, 홍콩 91%, 싱가포르 91%, 태국 91%, 아랍에미리트 89% 등이 다음이었다. 반면 스마트폰 보유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51%)이었다.

연합뉴스

'스마트 초이스'서 단말기 지원금을 한눈에

정부 통신요금정보 포털

인터넷·전화·IPTV 등 제공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하고 단말기 지원금 비교와 이동전화 외에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인터넷TV(IPTV) 등의 요금 정보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먼저 이용자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공시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스마트초이스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요금제는 3사의 지원금을 동시에 비교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통신사의 지원금 현황도 각각 한 화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

우를 고려해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 할인을 받을 경우의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전화 요금 추천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요금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용자가 입력한 사용량에 따라 2개 요금제만 추천하던 방식에서 상·하위 요금제도 함께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에 이어 유선 상품 비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의 요금도 요금 수준에 따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이동전화와 달리 사업자간 상품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사업자별 상품 안내도 제공한다.

미래부는 다음카카오와 제휴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도 스마트초이스의 간편한 요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주의 추천앱

영미권 최대 할인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전 세계가 들쭉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는 직구족이 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대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Slickdeals/제작 : Slickdeals/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미국의 저렴한 쇼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첫 화면에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용가능하지만 포럼-핫딜 메뉴를 이용하면 더욱 빠른 소식을 접할 수 있다.



Ebates Cash Back & Coupons/제작 : Ebates/안드로이드

해외 구매 시 적립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구매금액에서 최대 26%까지 적립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Ebates의 애플리케이션이다. 적립 외에도 할인쿠폰과 반짝 할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낙타세마리/제작 : Cosmic Shovel/http://camelcamel-camel.com

미국의 가격비교 사이트이다. 아마존 링크를 복사해서 넣으면 가격 변동추이와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



DESIGN ZOO'S 제공: 디자인주소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www.cjhellovision.com